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순종과 구원

(시편 119:153-168)

Obedience and salvation

(Psalm 119:153-168)

시인의 원수는 아직도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종을 보입니다. 순종은 성도에게 선택과목이 아니라 제자 됨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구원을 위해 순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Since his enemies are still near him, the psalmist expresses his obedience by waiting quietly for the Lord and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his enemies. Obedience is not an option but a requirement of being a disciple. Likewise, obedience is a requirement for us so that God might intervene on our behalf and save us.

1. 실천 없는 고백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순종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눅 6:49).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많은 이들 중에 순종의 삶이 없는 이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고백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경멸할 만큼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앙이 일천 명을 죽인다면, 행함이 없는 고백은 일만 명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1. Confession without practice

Jesus Christ spoke directly about obedience in the last part of His Sermon on the Mount (Luke 6:49). Jesus pointed out that there are those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obedience amongst confessing people. He said that if a person does not obey the Lord, they do not belong to Him. This was a reference to Israel's disobedience.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Jerusalem had been brought down by Babylon. Later, confession without practice was also a problem in the early church. Faith without obedience has no value; it is just the same as if we despise the faith. This problem, however, is still widespread in the church. If one thousand people are killed by disbelief, ten thousand people are killed by confession without practice.

2. 시인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자신을 깊이 잠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잠기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성경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 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156절).
- ②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160절).
- ③ 개인적 평화는 개인적 순종에서 온다(165절).
- ④ 순종은 안전보장을 준다(165절).

2. What the psalmist knows

If we want to be faithful disciples, we must immerse ourselves deeply in the Bible. If we want to get immersed, we must first of all obey what is written in the Bible. This psalm demonstrates this in four verses.

- (1) God's compassion is great (v. 156).
- (2) The Lord's words are true (v. 160).
- (3) An individual's peace comes from individual obedience (v. 165).
- (4) Obedience gives us security (v. 165).

3. 순종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떠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공부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또 경건하게 연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조명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3. Obedience and God's word

Obedience is implied by what we believe about God and what we rely on. Therefore, there is no road to being a real disciple without studying the Bible. Christians can obey God only by studying His word and learning the way of following the Lord.

We have to study the Bible daily, studying it systematically, inclusively, and devotionally through prayer. But cannot read the Bible without the Spirit's inspiration and guidance, and we cannot obey God without receiving the grace of Christ.

4. 구원과 하나님 말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사오니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므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 Salvation and God's word

The psalmist called out with his whole heart that he wanted to be saved. The psalmist knew that he was saved because he obeyed God's word, and loved His laws. Moreover, he prayed that he would be saved by the God who promised to save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studying the Bible each day and obeying His wor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 사명자대회 은혜 중에 계속돼

· 24시간 기도장소 - 1층 웨스트민스터 홀
 ·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 열열이기도(다니엘 기도)

지난 10월5일(월) 0시를 기해 시작된 2009년 사명자대회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본인이 맡은 시간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맡아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열심을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성도들은 열열이기도(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여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전도대는 70인전도대를 중심으로 이웃의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다.

아직까지 2009 사명자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은 더 늦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영광돌리기 바란다.



이종윤 목사

어둠이 짙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백성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거짓이 선을,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진리를 참이라 말 못하고
 핑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목소리만 크게 울리면서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 때문에
 주님, 우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껍질 속에 응크리고 앉아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이비 신자들 까닭에
 주님, 우십니까?

미천루 높은 빌딩 숲속에서
 질주하는 차들과
 희희낙락하는 군상들을 보시면서
 서울의 독사들아 남산의 암소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십니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주님 이 증은
 주님 대신 통곡을 하겠습니다.

사명자 대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못 다한 사명을 인하여 통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자기만 사랑한 죄를 자복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치 말라 하셨건만
 근심의 노예가 되었던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풋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셨건만
 암초 앞에 좌절했던 불충의 죄를
 애통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이 가을,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2009년 가을시즌 - 제12회 화요정오음악회

10월13일(화) 정오 - 11월10일(화) 정오 / 본당에서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2009년 가을시즌, 화요정오음악회(제12회)가 10월13일(화)정오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정오음악회는 우리교회 본당에 파이프오르간을 봉헌하고 난 후 이 귀한 악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좋은 음률을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하여 매년 2회(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시즌은 오르간 독주회로 열리며 10월13일(화) 정오 황양숙 오르가니스트를 시작으로 5주간 계속된다. 관람은 3층에서 하면 된다.

성도와 이웃주민이 함께 하는 전도와 여가선용의 장으로 서도록 기도한다.

일시	연주자
10월13일(화) 정오	황양숙 오르간 독주회(호남신학대학교 교수)
10월20일(화) 정오	손귀호 오르간 독주회(장신대 청빙교수, 안산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10월27일(화) 정오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미국 아리조나대학 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3일(화) 정오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연세대, 침신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10일(화) 정오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서울신대 성광회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서울교회 주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

10월16일(금) 오후2시 - 해병대 교육훈련단 학현관

서울교회 주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10월16일(금) 오후 2시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학현관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장교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진중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한다.

한편 이날 찬양은 미리암 중창단(지휘 김정희 권사)이 담당하며,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이갑진 장로)와 당회원, 비전2020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일 오전 6시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

추석 구제

2009년 열린바자 수익금으로

우리교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구제는 이웃사랑, 탈북자 돕기 그리고 아가페타운 건설을 위한 2009 열린바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다.

땀 흘려 수고하여 남을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추석 구제는 보람된 일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케 해드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사랑부 - 한마음 야외 예배

10월11일(주) 오전10시 한티공원

사랑부(부장 이강인 집사)는 오늘 3,000명 전도 운동 일환으로 한티공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외 예배를 드린다.

사랑부 야외예배는 찬양을동반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문정훈 지도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지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오전 10시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사랑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순례자 특별기고

기독교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달라도 구원의 길은 하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헬라종교들을 믿던 이방인들이었으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자신의 귀에도 들렸다고 말한다.

다섯 개의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5+1=6의 셈법에 따라 기독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먼저 다섯 개의 타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관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점에서 기독교의 타종교를 향한 태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종종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유일신관을 그 본질로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복음의 본성이란 점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김철홍 목사(서울교회의 협동목사 · 장신대 교수)

“

복음은 유일신관을 그 본질로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복음의 본성이란 점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

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갖는 배타성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종교학에서 고등종교로 분류되었던 종교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에서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라는 주장은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지는 것이며, 다른 종교의 신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지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 결국 기독교의 본성을 수정하지는 주장이다. 더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던 바울의 시대에 바울은 다른 종교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믿게 하는 개종을 하였다. 심지어 복음과 가장 가까운 종교인 유대교 안에도 구원이 없는데, 그 이상의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시대가 달라도 구원의 길은 하나"다.



아가페타운 오픈을 감사하며

아가페

이영희 권사(9교구)

기도와 간구로 열망하던
아가페 타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네
잔이 차고 넘치도록
서울교회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가페 타운에 온전히 임하였네

복음의 갑옷 입고
오직 주님 명령 준행 하니
비바람과 폭풍우도 해치 못하는구나

금 그릇도, 은 그릇도 아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필요를 따라 불러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이곳에 닿은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다

눈물이 뿌러지고
기도와 헌신으로 다져지고
정성과 땀이 어우러진 아가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는 평안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실천될 언약의 땅에서
우리는 순종 하리라
모두가 기뻐 뛰노는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찬양 하리라

선교사 교육을 받으며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홍남기 · 김인규 선교사
(우크라이나 파송예정)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곧 저희 가정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받아들입니다.

21년 전부터 장기선교사를 꿈꾸며 준비했던 과정이 거의 끝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심한 굴곡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희 가정에 생각했던 것이 상으로 큰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자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에 서울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서울교회에서 무엇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즐겨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기도제목이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함이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한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출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 가정이지만 서울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하나님

복음을 복한 땅에 전하는 선두의 자리에 서려고...

김기영 성도(디아스포라부)



살롬!!
올해로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와서 두 번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이 하루, 이를 다가오자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뜻밖에도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광일 전도사님과 김수원 집사님이 추석을 맞으며 저의 집을 심방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귀한 선물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맞는 명절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뜻밖의 선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했고, 저희 디아스포라부 교사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다른 길로

탈선 될세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갑진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한국사회의 정작생활도 잘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늘 대학공부를 잘하라고 기도해주시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살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학업에도 더 열중하여 미래의 자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역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복음을 복한 땅에 전하는 선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가 배로 넘치는 가을

최정의 성도(16교구)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엔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사계절이 모두 멋진 계절이지만 유독 짧게 느껴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귀한 고백을 나누게 해주셨고, 가정을 이루는 준비 또한 가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결혼준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중에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부분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가득했습

니다. 어려운 자리라고 해서 긴장했던 상견례를 좋은 분위기로 인도해주시고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때에 맞춰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가 가득해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쁨 때나 힘들 때조차 찬양하는 신랑과 함께하니 저도 항상 찬양 드리는 모습을 닮아갑니다. 해가 거듭해서 또 가을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저에게 시작이면서 열매 맺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한 농부가 된 기분인 가을, 한 해를 돌아해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 감사가 배로 넘치는 계절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내년 가을에도 좋은 열매 맺는 가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류충기 집사의 독창으로 드러진다. 류충기 집사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 트렌토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충남대에 출강하며 서울마포구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P.P.Bliss)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리며 피아노 반주에는 김현정 성도(3부 예배 오르가니스트)가 수고한다.

2009년 성경암송대회

범위: 로마서 1-5장

10월18일(주) -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3일(금) - 본선

2009년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왔다.

이번 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본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09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3일(화) 연세대 추수감사절 예배와 탈북난민보호운동 10주년 감사예배에서 각각 설교한다. 14일(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회를 갖는다.

■ 윤왕모 강도사(706 특공연대 군선교사)는 10월13일(화) 목사안수를 받는다.

■ Andreas Lindemann 박사(SNTS 회장, 독일 Bethel 대 신약교수)는 12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특강을 한다.

■ 김양언 선생(11교구)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2부 예배 피아니스트로 임명되었다.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10.11) 바울선교회(10.18)

■ 금주의 식사: 오영숙 권사 최창화 성도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예배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Opening 위하여
3. 2009 사명자대회 통해 받은 사명을 확인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험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